

# 강의평가 제도



**박 제 남**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jnpark@inha.ac.kr

인하대 수학과 학사  
서강대 수학과 석사  
University of Iowa 이학박사  
관심분야 : 가환환, 수학적재교육  
University Tennessee (Knoxville) 수학과 조교수

강의평가는 「①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② 여러 설문지 중에서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에 적합한 설문지를 선택하여 ③ 학생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하며, ④ 강의평가를 어떻게 점수화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도이다. 본 소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사항과 현재 시행에서 우려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1. 강의평가설문지 설계

강의평가의 설계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과대학의 학문특성이나 강의 규모, 그리고 실험·실습 유무 등을 고려하여 7개에서 9개 정도로 설문지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이 때, 각 개인별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1. 설문지 설계 고려 사항

고려형태	수업형태	실험실습	수강생수	교과목 유형
고려사항	칠판중심 수업의정도	실험실습 유무	소/중/대단위 강좌	필수/선택 유무

인하대의 경우 1998년에 강의평가설문지를 완성할 때, 전체교수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4차의 걸친 공청회

를 열었으며 9개의 유형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소단위 수업에서 실습을 통한 학습내용강좌에 적합한 형태(마형), 그리고 수업진행이 강의, 조별활동(조별 실습 및 토론 등)에 적합한 형태(아형) 등을 필자가 Tennessee 대학(Knoxville)에서 1995~1997년에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강의평가<sup>1)</sup>를 참고로 하여 개발<sup>2)</sup>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담당교수의 설문지 선택

학기 중에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 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설문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 3. 강의평가 절차

강의 평가의 절차는 강의 평가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절차가 편의성에 영향을 받으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된다. 1998년에서 몇 년간 시행한 인하대의 예를 들어 보자.

- ① 종강 3주전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 형태에 적합한 설문지를 선택
- ② 종강하는 마지막 시간 20분을 남기고 설문지배포 후 담당교수는 퇴실
- ③ 학생들은 담당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지완성
- ④ 학생대표가 수거하여 과사무실에 제출

1) Tennessee 101, A guide to courses at The University of Tennessee, Spring, 1996

2) 박제남, 홍영기, 강의 평가 설문지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인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1998.

⑤ 교무처는 설문지를 수거하여 통계처리

설문지 작성절차를 보면, 국내의 모든 대학들은 행정의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제도로 변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공정성을 위하여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강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기말시험이 끝나고 교수의 성적처리가 입력된 후 강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6~7개의 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 교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성적 열람에 관심이 집중되어 특정 줄에 마크를 하거나 기말고사를 망친 학생의 경우는 무성의 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절차는 교수들로부터 평가제도의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평가를 폐지하고 필자가 제시하고 오프라인에서 시행했던 5가지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강의평가의 점수화

강의평가에서 절차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평가를 공정하게 점수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필자는 카테고리를 학생 수(10명 이하, 11-20, 21-40 등으로 분류), 구분(교양, 전공으로 분류), 선택(선택, 필수과목)으로 나누어 표준화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강의평가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교수가 속한 전공학생인지,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교양/전공여부, 선택/필수여부, 실험실습여부, 그리고 판서위주의 과목인지

등을 고려하여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교수들 끼리 점수를 표준화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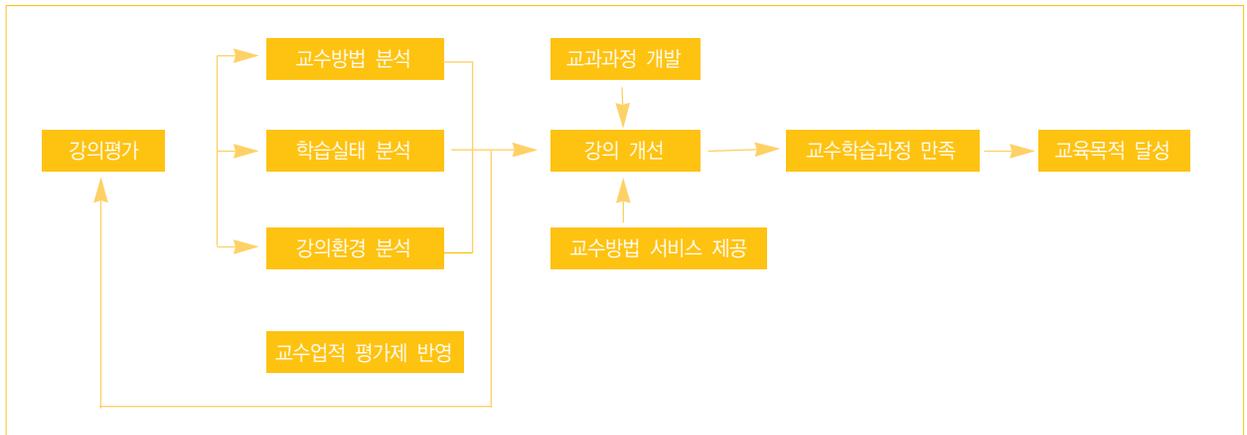
5. 강의 평가의 활용

현재 강의 평가활용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은 내부로는 교수업적평가에 반영과 외부로는 교과부 교육중심 대학 관련 사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강의평가 설문지의 결과는 각 대학의 고유한 풍토와 조화된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 개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교과과정 개발 및 교수방법 연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사업으로 연계되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직접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수업만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 배려가 뒷받침될 때 그 의의가 있다.

6. 시행의 문제점

1) 학생교육에 대한 노력부재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객관적 진지함이 필수 요소이다. 학생평가능력 함양은 단시일에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며, 입학생의 경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강의평가의 중요성과 문항의 명확한 뜻을 주지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진지한 평가 태도가 교수들의 교수법 발전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 그림1. 강의평가 활용방안

## 2) 교수학습센터 연구원의 위상

1998년 이후 여러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를 설치하고 교수방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연구원의 위상이다. 센터장은 교무처장이나 부처장이고 센터팀장은 교무처의 한 부서 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대학의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팀장의 지시 및 결정을 따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직 구도에서 강의평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대학들은 형식적으로 강의평가를 운영하고 교과부 주관 대학평가에서 한 항목을 채우는데 교수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 3) 강의평가공개의 잘못된 인식

강의평가 공개는 대학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들을 강의를 짜여진 시간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수강 신청할 때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하게 되고, 교수 입장에서는 강의를 잘하기 위한 피드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강의평가 공개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수강신청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즉, 여전히 누가 강의하는 지도 모르는 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면 강의평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주로 1,2학년의 교양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신청할 과목을 강의하는 여러 교수의 강의평가를 검색하고 이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의미가 살아난다. 즉, 강의교수의 시간표가 완성된 후에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보완 없이 강의평가의 공개를 교과부 시행 교육중심대학 등의 평가에 활용하려한다면 결국 강의평가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각 대학은 인식해야 한다. 물론, 강의평가를 공개할 때에는 교수가 부여한 학점의 결과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학점을 잘 주는 교수에게 학생들이 몰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 4) 교육기자제 활용 제고

학생들은 칠판중심수업보다는 PPT 화면을 사용한 수업을 선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강의평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환언하면 이공계에서 편미분방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역학관련 수업을 할 때, PPT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수업형태인지 우리 교수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